

주제 102(2013)년도  
재일본조선인교육회 중앙상임리사회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

주제 102(2013)년 2월

새해 주체 102(2013)년은 우리 민족력사에서 특기할 사변들인 공화국창건 6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며 우리 조국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 따라 김일성,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이다.

총련은 재일조선인운동발전력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올해 2013년의 기본방향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체계, 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총련조직을 공고히 다지고 민족교육사업과 새 세대, 동포상봉인물과의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활력있게 벌려 총련을 전종이 굳건하고 군중지반이 강하며 전도가 양양한 위력한 조직으로 만물기 위해 새로운 전성기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는 데 두었다.

그를 위하여 총련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총진군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똘똘을 지키고 총련조직을 고수하기 위하여 용근 한해동안,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 순간의 떨춤도 없이 총공격전에 일제히 결기해나설 것을 제시하였다.

올해 교육회사업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변화된 정세와 교육적환경에 맞게 교육회조직내부를 더욱 튼튼히 다지는 데 중심을 두고 각 단위마다 이미 꾸려진 학교운영의 토대를 한층 공고화 하는 한편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며 학교를 사랑하고 민족교육권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참신하게 벌려 그 폭을 결정적으로 넓히는데 주력하여 사업을 밀고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에 보내주신 첫 새해축전에서 주체위업의 높은 요구에 따라 재일조선인운동도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하여 새 전성기를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한다고 하신 간곡한 가르치심을 심장깊이 새겨 올해 교육회사업에서 새로운 성과와 전진을 이룩하는데 전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 1. 교육회조직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

## 체계, 정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 힘있게 벌려 결정적으로 심화할것이다.

1) 교육회전일일군들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모시고 정도적권위를 결사옹위하는 참다운 일군들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들릴것이다.

① 일군들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로작들과 위대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나갈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로작들과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행활동에 대한 각종 자료학습을 왕성히 벌릴것이다.

② 일군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심화할것이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진행하며 그들이 조국사랑과 동포사랑, 후대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워 동포학부도들속에 깊이 들어가 헌신함으로써 교육회앞에 제기된 과업수행에서 생활력이 나타나도록 할것이다.

③ <일군혁명화의 해>인 올해의 요구에 맞게 일군학습반과 직급별 학습체제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것이다.

일군학습반운영을 정상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며 학습에 빠지는 일군이 없도록 강한 규율을 세울것이다.

또한 총련일군들의 단기강습을 비롯한 각종 강습에 대상일군들이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할것이다.

④ 공화국창건 65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이하는 올해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조직되는 조국방문단에 교육회일군들을 망라시켜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약동하는 조국의 현실속에서 배우도록 사업을 적극 짜고칠것이다.

2) 교육회 비전임리사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대상의 실정

에 맞게 적극 차고돌것이다.

① 《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선전물들과 인터넷 등에서 소개되는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수님의 위대성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심화할것이다.

② 조국애, 민족애, 주체의 정세관과 총련애국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위대성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할것이다.

## 2. 각종 교육회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 큰 힘을 넣을것이다.

1) 교육회일군들속에서 조직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할것이다.

일군들속에서 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모든 일군들이 조직규율,사업규율을 철저히 세워 맡은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것이다.

특히 모든 단위에서 원조직사상생활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여 정치사상적 단련을 강화해 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올해 교육회일군들의 조직사상생활총화를 용근한 해동안,긴장된 태세를 견지하여 순간의 멈춤도 없이 총망적 전술 벌려나갈 사상정신적각오와 사업태세를 갖추도록 하는데 철저히 복종시켜 나갈것이다.

2) 교육회 비전임일군들이 교육회역원된 금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은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정에 맞게 대상화하여 꾸준히 진행할것이다.

3) 중앙교육회의 지도성을 높이며 도도부현교육회와 각급 학교교육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지도방조사업을 강화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교육회와 각 도도부현교육회, 각급 학교교육회사이에 꾸려진 보고,통보,전달체제를 제정비하고 신속히

운영되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또한 교육회일군들의 행정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하여 학교운영의 합법성을 고수하는데 힘을 기울일것이다.

### 3. 불퇴전의 각오로 올해 교육회앞에 제기된 본신사업들을 수행해나갈것이다.

1) 학생인입사업과 일교전출을 막기 위한 사업에 전기관적인 힘을 들릴것이다.

①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각계층 동포들속에서 교육강연회, 심포즘을 적극 조직하여 민족교육의 우월성을 보다 폭넓게 해설선전할것이다.

② 모든 교육회들에서 대상동포들과의 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갈것이다.

당면 2013 학년도 입학식날까지 인입대상동포들과의 사업을 계속 벌릴것이다.

다음으로 2013 학년도 1학기내에 2014 학년도 학생 및 원아 인입대상명단을 갖추고 명년 2014년 3월말까지 단계별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는 자세를 갖출것이다.

③ 일교전출이 우려되는 대상을 미리 포착하여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설복교양하도록 할것이다.

④ 초급부신입생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갖추는데 주력할것이다.

— 초급부신입생을 받아들이는 원천인 2살보육반과 유치반에 원아를 적극 받아들이는 사업에 지난 시기 없는 관심과 힘을 들릴것이다.

— 유치반을 내오지 못한 학교들에서는 각급 기관의 협력밑에 <유아교실>을 내오도록 할것이다.

— 초급 학교와 유치반에서 급식과 〈학동보육〉, 〈연장보육〉, 〈방학보육〉 등 학부모들이 바라며 광범한 동포들을 우리 학교에 받아들이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가능성을 찾아내어 실현해나갈 것이다.

2) 조성된 정세와 민족교육사업이 놓인 오늘날의 긴장된 상황에 맞게 학교운영의 자립적로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학교 사랑, 지원운동을 힘있게 벌릴 것이다.

① 〈학교사랑 일구운동〉의 폭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 현재 각 학교들에서 벌리고있는 〈학교사랑 일구운동〉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장악하고 새 학년도부터 소액, 다구좌를 기본으로 하여 한층 확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청상회와 〈어머니회〉, 〈아버지회〉, 〈동창회〉에 망라된 새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군중을 이 운동에 적극 인입시켜 각 교육회마다 구좌수를 현재보다 각각 1.3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워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매 학기 말마다 교육회리사회에서 〈학교사랑 일구운동〉 추진정형을 반드시 총화짓고 개선대책을 토의하도록 할 것이다.

— 〈학교사랑 일구운동〉을 아직 벌리지 못하고있는 단위들에서는 이 운동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강화하고 각계층 동포군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을 짜고들 것이다.

② 〈바자〉, 〈차리티골프콘페〉를 비롯한 학교사랑, 지원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육재정원천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총련본부의 지도밑에 전기관적인 힘으로 참신하게 벌릴 것이다.

③ 학교창립정주년기념행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를 적극 리용하여 우리 학교 졸업생들과 학부모를,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애교친목회를 꾸리는 사업을 벌려나갈 것이다.

④ 학구관하 유력상공인을 비롯한 창조자대렬을 늘이는 사업에 계속 큰 힘을 기울일 것이다.

3) <4.24 교육투쟁> 65 돌이 되는 올해에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전진과 성과를 이룩할 것이다.

①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를 적용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심화할 것이다.

— 교육회일군들과 동포학부모들속에서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를 적용시키기 위한 투쟁이 우리 민족교육의 재반권을 지키는 데서 현시기 가장 첨예한 문제로 나서고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시킬 것이다.

— 매 시기 조직되는 <고교무상화>를 위한 각종 투쟁에 광범한 애국력량과 대외력량이 총동원되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태세를 갖추어나갈 것이다.

② 교육조성금급부와 세계상차별철폐를 비롯한 대외사업을 계속 강력히 벌려나갈 것이다.

— 일본자치체의 각 정례의회를 지향하여 교육조성금지불과 세계상차별철폐를 비롯한 대외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태세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갈 것이다.

— 정치문제를 인위적으로 걸거나 일본경제의 불황과 재정난을 비롯한 여러가지 구실로 교육조성금을 보류, 정지, 삭감하려는 일본행정당국의 움직임을 제때에 포착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 대중적행동을 벌려나갈 것이다.

— 교육조성금지급과 관련된 요청운동을 진공적으로 벌리기 위한 실무대책과 정보수집에 힘을 넣으며 이 사업에 영향력 있는 친조인사들이 적극 협력해나서도록 할 것이다.

—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 <외국인학교협의회>와 같은 대외친선협력단체를 더 많이 내오도록 하는데 계속 큰 힘을 기울일 것이다.

4) 교원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고 그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는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한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데 주력할 것이다.

① 교원들의 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한 자금부족에 보다 큰 힘을 들일것이다.

— 모든 교육회에서 각종 수급사업을 제기일내에 철저히 진행하도록 할것이다.

특히 학교운영비를 모든 학교에서 100% 징수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일것이다.

— 창조자대렬을 더욱 높이는 한편 사업수입을 불쿠기 위한 새로운 방도를 찾아내는데 각별한 힘을 들일것이다.

이와 함께 경비의 절약운동을 계속 벌릴것이다.

② 인건비문제해결을 위한 전조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서 각 교육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이다.

③ 교원들과의 사업을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그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사업해나갈것이다.

— 학교장, 교직원분회장들과의 긴밀한 편제밑에 교원들의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를 지때에 료해장악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할것이다.

— 교육회일군이 교무위원회에 참가하여 학교교육사업의 방향과 계획을 알고 교수교양의 정형과 교원들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할것이다.

— 지방출신의 젊은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원들과의 기별담화 사업을 자주 진행하며 그들의 생활상고민을 풀어주는에 힘쓸것이다.

5) 민족교육사업을 중심에 놓고 학부모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동포군중과의 사업을 적극 짜고들어 동포사회를 민족성이 넘치는 단합되고 화목하며 약동하는 힘있는 동포동네로 꾸리는 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① 동포방문사업을 힘있게 벌려 동포들과의 사업을 실도있게 해나갈것이다.



—교육회일군들이 발이 넓도록 동포들속에 들어가 20 대, 30 대, 40 대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에 다닌 동포들을 모두 찾아내고 묶어세우는데 앞장설것이다.

—각급 학교 학구단위로 졸업생을 중심으로 여러 사정으로 조직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사상과 정견, 단체소속이 다른 각계각층 동포들의 명단을 폭넓게 장악하고 그들이 제일동포사회를 고수확대하기 위한 민족교육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도록 선전광보사업을 주동적으로 벌릴것이다.

② 민족문화운동을 확대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교육회가 학교시설을 리용하여 종편지부와 단체들에서 조직하는 강좌와 교실, 문예체육소조활동 등 각종 군중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뒤받침함으로써 민족적인 〈그릇〉과 사업가치수를 확대할것이다.

6) 3대에국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다.

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통일외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남조선인민들속에 널리 알리는 선전사업을 벌릴것이다.

—북남관계개선과 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정치선전을 강화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각계층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4 월련석회의 65 들, 조국해방전쟁승리 60 들이 되는 올해에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저속적운동에 일본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합세하도록 하는데 앞장설것이다.

—조국통일사업을 기관화하며 새 세대가들이 주역이 될 다양한 통일운동과 단합하층동포들과의 단합사업을 강화해나갈것

이다.

②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외사업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들어주고 다양한 대외정치선전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 것이다.

—일본의 진보적 교육단체와 광범적인 인사, 학부모조직들이 일본당국의 대조선제재해제와 조일평양선언의 리행을 촉구할 여론을 조성하는데 큰 힘을 넣을 것이다.

—현시기 조성된 민족교육을 둘러싼 엄혹한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지방마다 교육권옹호, 확대를 위한 일본자치체와 지역의 여타단체들과의 대외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우리 학교야당을 통한 다양한 조일우호선전행사들이 왕성히 조직진행되도록 할 것이다.

③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양하여 우리 나라 경제강국건설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물 각 단위 실정에 맞게 적극 벌릴 것이다.

#### 4. 조직정치사업에 대하여

① 각급 학교 교육회에 대한 지도방조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 교육회일군들의 정치사상생활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교육회가 이미 정해진 제도에 따라 사업정형물 제때에 보고하는 귀율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도록 할 것이다.

그를 위하여 월말보고서들 비롯하여 각 교육회의 사업정형을 지정된 기일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난해의 교훈을 살려 2012 하반기도 학교운영결산보고서와 2013 하반기도 교육회일군(리사회)명단을 지정된 기일안에 작성하고 제출(6월 초순까지)하도록 함으로써 올해 사업계획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다.

—올해 각 교육회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를 전당 신속히 처리할수 있게 지도와 방조를 강화할것이다.

② 올해에 조고소재지 도도부현교육회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이다.

그를 위하여 중앙교육회가 조고소재지 도부현교육회와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그의 지도통제밑에 관하 각급 학교 교육회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사업질서를 보다 철저히 세우도록 할것이다.

③ 중앙교육회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이다.

무엇보다도 일군들의 정치사상적 및 실무적자질을 높이는 데 큰 힘을 기울일것이다.

다음으로 중앙교육회가 맡은 사명과 임무에 맞게 학교지원을 위한 재정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한층 심화시킬것이다.

\* \* \* \* \*

중앙교육회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개척의 활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올해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제시된 사업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총성심에 기초한 대오의 일심단결을 한층 강화하여 불굴의 신념을 안고 맡은바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올해 2013년을 뚜렷한 사업성으로 빛나게 장식해나갈것이다.